

Korean

벨뷰 교사 노조 대표 Allison Snow의 메시지:

지난 몇달 동안 공립학교 선생님들은 외쳐왔습니다. 우리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고 어려운 상황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 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Covid-19 펜데믹 상황이 야기한 상황들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러기에 저희는 이 전례없는 상황 속에서도 학생들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학습 자료들을 배포하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감염 사례들은 이제 최고점에 달해왔고 이 Covid-19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이제 저희의 가까운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아울러 Covid-19 바이러스에 대해 더 알아갈수록 저희는 바이러스 변이, 백신 부작용, 그리고 새로운 충격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만든 시스템과 국가 전역에 걸쳐 뿌리 깊은 인종 차별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유색 인종 (흑인, 원주민, 아시안)으로 학교 스테프, 학생, 학생 가족들이 처한 불평등한 상황들을 목도하여 왔습니다. 공공에 만연한 두려움과 피로, 능률 저하는 이제 최고조에 달해있습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다분하고 복잡한 상황속에서 저희는 공립 교육의 지속적이고 안전한 기능을 위한 기준들을 제시하여 왔고, 이 기준들은 이 기준들을 제시한 사람들과 불리되어 존재할 수 없는 시스템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두려움이 있고 그들만의 필요가 있습니다. 교사 노조로서 저희는 이러한 상황들을 지속적으로 인식하고 어려움들을 타개하고자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비록 이러한 염려들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에 관해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러한 상황 자체를 무시하는 것은 비인간적인 행위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학생들의 마음과 생각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교사에게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저는 Bellevue School District의 리더들에게 이 학생들을 위해 일하는 스태프들을 한 인간으로 인정해주길 부탁드립니다. 비록 현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에 동의하지않더라도 그들을 이해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관심과 헌신을 기억해주시고 제발 저희 서로를 적으로 여기는 증오와 분쟁을 초래하는 언어를 삼가주십시오. 교육자들이 그들의 학생들을 돕고자 그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들의 생명과 인간으로써의 존엄을 곤경에 빠뜨리는데까지 요구되어서는 안됩니다.

이 펜데믹이 끝난 후 우리는 언제든 다시 현실 할 준비가 되어있고 우리가 당면한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 헤쳐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Bellevue School District 리더쉽이 이에 동참해줬으면 좋겠습니다.